

물놀이장의 조립식놀이감

우리 인민 누구나 즐겨찾는 문수물놀이장의 곳곳마다에는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다심하고 세심한 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문수물놀이장에 꾸려진 기념품상점에 들리시었을 때였다.

상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상품들을 잘 진렬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던 경애하는 그이의 시선은 어느한 진렬대에서 멈추어섰다.

진렬대에는 물놀이장을 찾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조립식놀이감이 놓여있었다.

잠시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진렬대를 가리키시며 이 조립식놀이감은 물놀이장에 무슨 필요가 있는가고 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부끄러움을 금할수가 없었다.

물놀이를 하는 과정에 어린이들이 조립식놀이감을 찾는다는것이 과연 생활리치에 맞는것이며 또 설사 놀이감을 들려준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놀 아이가 과연 있거나 할것인가.

물놀이장의 조립식놀이감, 그것은 물놀이장에서 운영되는 상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일반상점처럼 생각한 일군들의 굳어진 사고가 낳은 착오였던것이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기념품상점을 물놀이장의 사명에 맞게 꾸리고 상품진렬도 개선할데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이렇듯 다심한 어버이사랑에 떠받들려 문수물놀이장의 기념품상점에는 자기의 특성에 맞는 상품들이 놓이게 되였다.